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의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소비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ption in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Participant's Daily Life as a Consumer

천경희 · 송인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Chun, Kyung Hee · Song, In Sook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ption in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participant's daily life as a consumer.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re used for the understanding about the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the daily lives as a consumer of Hanbat LETS participants'. The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ption used for analysing of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are the subjective participation, production process-aware consumption, others care to consumption, sustainable consumption, voluntarily simple lif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s the alternative economic system practicing the ethical consumption.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crease the subject participation, realize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society and the ecological value and voluntary simple life. This research get the meaning for considering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 the ethical consumption on the discriminatory perspective.

Keywords: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daily life as a consumer, ethical consumption, Hanbat-LET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 서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제도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기업 및 개인의 자기 책임을 높이고 경제를 효율화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로 평가받지 못하면 선택되기 어려우며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통로를 갖지 못하면 무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실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는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만이 교환가치를 지니므로 국가 화폐인 돈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도 쓸모가 없게 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비윤리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협성을 증명하며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방향선회를 요구하고 있다(Cho, 2012). 그동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

† 본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51-C00177)

* Corresponding Author: Song, In Sook
Tel: 02-2164-4307, Fax: 02-2164-4301
Email: sinsook@catholic.ac.kr

한 노력이 있어왔는데, 그 노력 중의 하나가 특정 지역 또는 공동체 내에서 지역공동체 안에 가입한 어느 누구와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돈, 즉 공동체화폐를 발행하여(Park, 2004)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인 공동체화폐운동이다.

공동체화폐운동이란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동체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여 지역 내에서의 경제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실업, 불신, 공동체 붕괴 등 많은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 경제실천운동으로서 1983년 캐나다의 마이클 린턴이 캐나다 밴쿠버 코목스 벨리라는 소도시에서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라는 대안적 경제체제인 공동체화폐제도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Chun, 2006)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00여 개가 시도되고 있다(Martignoni, 2012).

한편,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욕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과잉소비나 과소비가 만연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습관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계속되는 소비자의 소비생활로 인해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등 자연생태계의 환경변화 뿐 아니라 빈부격차, 삶의 불만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비습관이나 소비태도 등 전반적인 소비생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Chun *et al.*, 2012; Hong & Sin, 2010; Huh, 2011; Park & Kang, 2009). 즉 소비자의 선택이 지역적 혹은 전 지구촌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자연생태 등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가를 인식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 윤리적 소비(Hong, 2009)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몇몇 연구자와 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연구자와 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에 기울이는 관심과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기준과 소비에 대한 인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Hong & Sin, 2010).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전체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될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경제제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화폐운동은 시장경제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소비기준과 인식을 변화함으로써 지구에 미치는 결과를 인식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인 윤리적 소비(Hong, 2009)와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경제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공동체화폐운동과 윤리적 소비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소비윤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의식 있는 소비, 책임 있는 소비 등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바, 윤리적 소비의 실천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일상생활세계가 곧 소비생활세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비는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의미로 확대되었고 물품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좁은 의미의 소비개념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 녹아든 넓은 의미의 소비개념으로(Kim, 2006)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이 시장경제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활동과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하는 윤리적 소비를 공동체운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의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개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공동체화폐운동의 확산을 통해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삶을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으로 조망하였다는 데에서 기존의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연구들과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특성

1) 윤리적 소비의 개념

윤리란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도덕적 원리 혹은 기준(Muncy & Vitell, 1992)으로 가슴으로부터 타인과 사회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이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Kim & Chae, 2003). 이러한 개념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정의하면 소비생활에서 타인과 사회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다. Mintell(1994)은 ‘압제적인 제도와 군사비를 포함한 윤리적 이슈, 동물이슈를 고려하여 쇼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Barnett *et al.*(2005)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 자체에 대한 통제’라 보고 소비자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고 Crane & Matten(2003)은 ‘개별적, 도덕적 신념에 의해 소비선택을 하는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이라고 하였다. 한편 Vitell *et al.* (2001)은 상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비윤리적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바라보고 있다. 한겨레신문(건강에서 환경, 이젠 사회로... 진화하는 착한 소비, 2009)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에 근거해 내리는 의식적인 소비선택으로서 반드시 당장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이웃을 고려하며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리는 구매선택을 윤리적 소비라고 정의하였으며, Cowe & Williams(2001)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 또는 윤리적 고려를 하는 소비로 보았다. The Cooperative Bank(2007)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식품, 주거, 교통, 의복, 금융, 자선단체기부 등의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지출을 말하며 인권이나 사회정의, 환경과 동물복지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Hong & Song(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자의 개별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가능한 소비의 책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으로 나누어 소비행동을 구매행동 뿐만 아닌 자원의 배분,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 즉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윤

리적 소비인 것이다.

2) 윤리적 소비의 특성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소비를 의미하는가? 윤리적 소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즉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이에 대해서는 먼저,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관한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Chun *et al.*(2010)은 윤리적 소비는 상거래소비윤리, 구매운동, 불매운동,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제품구매, 공동체화폐운동,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Park & Kim(2010)은 윤리적 소비는 생산에서 유통, 소비와 사용, 이후의 처리와 재생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인간과 동물, 환경을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비윤리적’ 상품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윤리적 상품’에 지갑을 여는 것이라고 하였다. Lee & Sin(2012)은 윤리적 신념을 토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라고 정의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윤리적 소비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윤리적 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인권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공동체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로 실천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윤리적 소비의 특성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윤리적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와 같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동기와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윤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게 되는 동기와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Hong과 Song(2010)의 연구에 의하면 윤리적 소비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가족의 건강,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직업, 자연과 환경 관련 경험 등에 의해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개인적 만족감, 우리농업 살리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같이 이타적인 것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친환경농산물과 같은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윤리적 상품 중 하나인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를 파악한

Hong과 Song(2008)의 연구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구매자는 이기적인 동기와 더불어 환경, 농업, 지역공동체와 같은 이타적 동기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와 이기적 동기만 있는 경우로 나뉜다고 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동기는 대부분 식품안전, 건강과 같은 이기적 동이었으나 현재 주요 구매동기는 이타적 동기로 변화되었으며 환경과 농업, 지역 공동체 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타적 동기가 발달된 소비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량과 품목이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구매량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고 하여 이타적 동기가 윤리적 소비를 계속하게 하는 동력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윤리적 제품인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초기부터 사회적 도덕적인 이유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Cha와 Ha(2010)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사회적, 도덕적인 이유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다. 구체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이 품질이 좋을 것 같다는 품질에 대한 인식, 자연스럽게 기부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부를 위해 탐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낮은 탐색비용,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현시적 소비성향 등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지적되었다.

Chun과 Rhee(2005)는 대전의 한발레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발레츠 가입동기를 살펴보았는데 ‘한발레츠가 추구하는 이념과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웃과 함께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등 개인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념적, 사회심리적인 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무역과 유사하게 사회적이거나 이타적인 동기가 더 강한 사람이 공동체화폐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윤리적 제품을 구매하거나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때 처음에는 개인적, 이기적 또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이타적인 사회적인 동기로 확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윤리적 소비는 이타적인 사회적 동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Kim(2009)의 연구에 의하면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공익에 일조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책임감 차원’과, 사회구성원 개

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식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윤리적 소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된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남을 도우려는 박애주의 성향, 그리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고의적으로 윤리적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 죄책감을 느끼는 등 윤리적 제품 구매 유무에 따른 감정변화 차원은 윤리적 소비행동을 일으키는 심층적인 영향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Huh(2011)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태도가 윤리적 상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보편성의 가치와 이타주의, 교육수준(대학 재학/대졸이상)이 윤리적 제품 구매의도에 인과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변수로 나타났다.

Hong & Sin(2010)은 윤리적 소비를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적 소비,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 차원으로 구성하여 대학생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을수록, 이상주의 성향이 높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을수록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수준이 높았다.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적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 관련매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가 낮을수록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적 소비행동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고, 윤리적 소비관련 매체를 보다 많이 접할수록,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을수록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 수준이 높았다.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대해 Muncy와 Vitell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30개가 넘는 실증조사가 이루어졌고(Vitell, 2003a; Vitell, 2003b), 국내에서도 빈번히 조사되어 왔다(Jae et al., 2004; Kim, 2004; Kim, 2006; Song & Jae, 2006). 이들 연구들은 윤리적 상거래행동이 윤리적 소비의 기초영역의 하나(Chun et al., 2010)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윤리적 상거래행동이 윤리적 소비의 주요한 특성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문헌과 연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소비

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직한 거래를 한다. 둘째,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셋째,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한다. 넷째, 생산과 유통과정을 인식하면서 소비한다. 다섯째, 소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 여섯째,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소비를 한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 소비를 한다. 여덟째, 경제적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를 한다. 아홉째, 인류와 연대감을 생각하는 소비를 한다. 열째, 소비를 절제하고자 한다.

즉 윤리적 소비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소비하는 특성을 보이며, 개인 소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인류 전체와의 연대감을 실천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윤리적 소비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체적인 소비, 둘째,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 셋째,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넷째, 지속가능한 소비, 다섯째, 절제하는 소비로 정리할 수 있다.

2. 공동체화폐운동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는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에서 보이는 윤리적 소비 특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화폐를 이용하여 상호 거래 및 교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동체화폐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기위해 운용하게 되는 대안적 경제체제를 공동체화폐제도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동체화폐의 유형

공동체화폐는 20세기 초에 대공황으로 위축된 세계경제에 국가화폐가 유통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그 역할이 감소되어 대부분 사라졌다. 이후 1980년대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이 등장하여 현재 국가로부터 지지받는 보완적 의미의 화폐로 인식되고 있는데(Chun, 2008a), 대표적으로 보완화폐 성격인 LETS, 시간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Time Dollar, 시간거래를 화폐로 발행하는 Hours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각의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보완적 의미의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Chun, 2006). LETS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의 코트니라는 소도시를 시작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화폐유형이며, Time Dollar는 워싱턴에서 시작한 시간

예탁제도로써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에 가까운 제도이다. Hours는 1991년 뉴욕 주에서 창설된 'Ithaca Hours'가 최초인데, Hours에서는 화폐의 거래가 계좌 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용되는 지폐를 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1998년 비즈니스 관계자가 참가하기 쉽도록 만든 '토론토 달러'가 있으며 프랑스의 SOL(System of Exchange), 멕시코의 Tlloc(수표형태로서 상호신용제도), 아르헨티나의 RGT(Ted Global de Trueque, 글로벌 교환네트워크) 등이 있다. 여러 유형의 공동체화폐 중 LETS는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LETS는 '현금의 사용 없이도 사람들 간에 상품과 서비스들의 모든 종류를 사고 팔 수 있는 모임'(Kim, 2000)이다.

2) 공동체화폐의 운영원리

공동체화폐는 지역주민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상호 거래 및 교환을 촉진하여 국가화폐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체화폐는 한정된 지역 내 주민들에게만 회원가입의 자격을 부여하며 회원이 제각기 제공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원하는 거래를 공개한다. 운영단체는 회원들이 제각기 제공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회원들이 모두 열람하여 공개하고 원하는 당사자들 간에 공동체화폐를 이용하여 거래한다. 구매한 사람의 계좌에는 (-) 계정이 이루어지고 거래한 사람의 계좌에는 (+) 계정이 이루어진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나 수요자의 일대일의 교환이 아니라 공동체화폐제도에 가입한 회원들 전체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즉 A가 B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는 자신이 필요할 때 C나 D 등의 제3자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개별 공동체화폐의 단위를 적용하여 교환거래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합의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as cited in You, 2000; Chun, 2006).

3) 공동체화폐제도의 특성

공동체화폐를 이용하는 경제체제인 공동체화폐제도는 노동력을 강제로 팔지 않고 억압적인 명령체계 속에서 일하지도 않으며 화폐의 수량이나 가시적 성과에 따라 인가를 평가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경제 방식, 즉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공동체 내부의 개인의 가치인 자유와 그에 따라 생기는 책임에 기초하며 ‘동의’, ‘무이자’, ‘공유’, ‘정보공개’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갖는다(Makoto, 2000/2002). ‘동의’는 참가와 탈퇴는 물론이고 모든 거래는 동의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무이자’란 구좌의 차변과 대변, 어느 쪽의 잔고에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란 공동체화폐제도 내의 지원 서비스를 참가자 중의 누군가가 비영리 원칙에 따라 실비로 제공하며 그 비용을 참가자 전체가 이용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 공개’는 사용자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말한다(Chun, 2006).

공동체화폐는 현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각국을 포함해 전 세계 5,000여 지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 질서나 유사시스템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제도로서 대응성, 호혜성, 기록성, 공개성의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Lee, 2002). 즉 공동체화폐제도는 빌린 사람에게가 아니라 회원 중 아무에게나 갚으면 되며(대응성), 자원봉사와 비슷하지만 빌린 사람에게 대가가 있고(호혜성),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을 모두 기록해놓으며(기록성), 은행의 계좌와 비슷하지만 이자가 없고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공개성) (as cited in Pacione, 1997; Kim, 2000). 따라서 공동체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체화폐를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눅들 일은 없는 것이다. 공동체화폐가 많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고 공동체화폐가 적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Kang(2002)은 공동체화폐제도에 내재하는 특성을 설명성, 탈이윤, 자립성, 연대성, 평화성, 생태성 등 6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화폐운동의 사회, 경제적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이다. 공동체화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적 교환과 거래를 장려시킨다. 그 결과 지역 내 상점의 활성화와 지역생산 및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경제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Chun, 2006; Pacione, 1997). 또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에 시장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이웃 간의 비공식적 복지와 간호서비스 등을 활성화시켜 공동체의 부활을 도모한다. 즉 비공식경제의 정신을 공식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Chun, 2006; Makoto, 2002/2006).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 종류의 구성 분포 중 가사서비스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Williams, 1996;1997).

4) 우리나라 공동체화폐운동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라는 민간단체에서 1998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체화폐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9년 초반기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2000년 31개의 공동체화폐제도가 존재하였다(Chun, 2009; Kwon, 2001). 하지만 한국경제가 IMF를 극복하면서 공동체화폐제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수많은 공동체화폐제도는 소리로 없이 사라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은 한밭레츠 등 한두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Cho, 2012; Lee, 2000).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국내에서도 IMF 때와 같이 공동체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아지고 마을 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가족부, 노동부와 같은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화폐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Cho, 2012; Chun, 2009). 한국지역화폐운동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전한밭레츠, 과천품앗이 두 곳 이외에도 서초품앗이, 구미사랑고리, 부산사하품앗이, 지역품앗이 성남누리 등 관심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곳과 서천레츠, 여성노동자회, 홍성풀무공동체, 정읍전주 한살림, 대전 풀뿌리사람들 품앗이 은행, 생협 전국연합회 등 새로이 시작한 곳을 모두 합하면 전국에 40개가 넘는 공동체화폐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가꾸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공동체화폐를 사용하는 품앗이의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시혜적인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립적인 공동체를 구상하면서 2010년부터 서울시 6개구에서 e-품앗이를 기획하여 시작하였으며, 현재 구로구, 은평구,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10개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http://poomasi.welfare.seoul.kr/main/searchPoom.do>) 2012년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7월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e-품앗이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도 영구임대주택주민들의 나눔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S-머니 사업(<http://www.s-moneytogether.net/>)을 강남, 방화, 평화 세 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체화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 관련연구 검토

공동체화폐운동이 지역경제의 자립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진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의미나 현황을 분석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후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복지제도로서의 의미를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새로운 관점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연구되어 온 공동체화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화폐제도 내의 경제시스템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Kang, 2002; Lee, 2000a, 2000b; Won, 2001), 공동체화폐운동이 갖는 경제적 함의를 분석한 연구(Kwon, 2006), 공동체화폐운동을 소개하거나 실태를 분석한 연구(Im, 2004; Kang, 2005; Lee, 1999; Lee, 2000; You, 2000),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의 동기를 분석한 연구(Kwon, 2001), 공동체화폐운동과 공동체 의식 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Kim, 2000; Kim & Kim, 2000; Kim & Kim, 2001), 공동체화폐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Ryu & Choi, 2003) 등이 있으며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연구(Lee, 1999)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현황을 소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심층적으로 사례 분석한 연구도 있다(Kang, 2005; Park, 2001; Ryu & Choi, 2003; You, 2000). 이외에도 공동체화폐에 관한 출판물을 소개한 연구(Lee, 2004)와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So & You, 2004)가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의식이 공동체화폐운동 공동

체 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한 연구(Cho, 2012)와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화폐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안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연구(Kang, 2012)도 있다.

한편,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소비자로서의 소비행동이나 소비태도 나아가 소비생활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Lee(1999)는 전국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생활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동체화폐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평가하고 소비생활에서의 공동체화폐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수준은 낮은 상태이나(‘처음 들었다’가 62.1%),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0.5%로 효용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였음을 밝혔다. Chun & Rhee(2005)는 참여관찰과 집단심층면접법을 통해 공동체화폐운동의 소비문화적 함의를 고찰하였는데, 공동체화폐운동이 공동체사회 실현을 통해 소외를 탈피시켜주며 환경친화적 가치를 실현시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자신의 능력 개발과 실업자 구제수단의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뢰를 통한 거래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Chun(2006)은 질적연구방법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의 소비자주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화폐운동이 주체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며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신뢰 중심의 거래로 신용사회를 구축하며 공동체사회를 실현하는 소비자주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완해주는 경제체도로 볼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Chun(2008b)은 사례연구방법으로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프로슈머활동을 분석하였는데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프로슈머활동을 통해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일자리로 재창조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인력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화폐운동을 대안적인 공동체운동으로 보고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비자로서의 삶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참여활동과 소비생활의 내용과 의미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공동체화폐운동의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인 공동체화폐운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윤리적 소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화폐운동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여 활동과 그들의 소비생활에서 윤리적 소비의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공동체 참여 활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공동체화폐운동이 지니는 윤리적 소비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공동체 참여활동과 소비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동체화폐운동이 소비자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첫째, 주체적인 소비, 둘째,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 셋째,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넷째, 지속가능한 소비, 다섯째, 절제하는 소비로 보고 공동체화폐운동이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참여관찰과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은 질적 연구방법이 수량화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측면들을 확인하려는 시도로서 공동체화폐운동과 같이 적은 수의 실제 경험 사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일반적인 원칙들을 찾고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방법은 참여자가 직접 기술하는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활동의 동기 및 결과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공간을 한발레츠로 정하였다. 한발레츠는 대전지역에서 1999년 10월에 기획되었으며, 2000년 2월에 약 70여명의 회원이 모여서 시작한 이래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동체로서 참여자들의 삶에서 공동체화폐운동의 대표적인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발레츠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와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동, 품앗이학교, 만찬, 어린이극단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레츠를 중심으로 민들레 의료 생협,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 생산자 모임, 여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발레츠에서 참여자들의 실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공동체화폐운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04년 5월부터 한발레츠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2년 7월까지 여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한발레츠 구성원들의 공동체 참여활동과 소비생활을 조사하기 위한 집단심층면접은 2011년 1월 19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단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접대상자의 이름은 실제 한발레츠에서 서로 부를 때 사용하고 있는 이름(별명, nickname)이다. 집단심층면접 조사대상자는 가입기간, 거래정도, 소모임 활동여부, 기혼여부, 거주지 등 전체 회원의 구성비를 고려하고 그동안 한발레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회원, 거래가 활발한 회원 위주로 한발레츠 담당 실무자인 '두루지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Participant (Nickname)	Sex	Age	Occupation	Activity Field	Activity Period *
Okgang	Female	46	manager of LETS	Daeheung-dong LETS, Medical Coop	8 years
Langlangbyul	Female	39	academy instructor	dream program	3 years
Baram	Female	40	office worker	LETS office	4 years
Jajak	Female	39	office worker	LETS office, Duru-babsang	7 years
Gamkokgi	Female	43	housewife	member activities	6 years
Gaulhanl	Female	52	multicultural family counselor	tea ceremony, health small meeting	7 years

* Activity Period based on the January 2011.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은 참여자 소개, 한발레츠 참여동기 및 참여활동에 대한 내용, 활동 참여기간, 참여이유 등 공동체 참여경험 및 활동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주요 관심 내용, 소비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내용, 세상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 등 한발레츠 공동체에서의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집단심층면접은 녹취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를 풀어서 정리하면서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를 정독하여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확인된 정보는 주제별로 분류하기 쉽게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주었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검토하였으며 관련 없는 정보들을 찾아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면서 따로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범주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일일이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분석이 끝난 후에 연구자들이 평가 및 토의를 여러 차례 진행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IV. 연구결과

1.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의 공동체 참여활동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은 구성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나고 교류하며 또한 그들과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

거래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 한발레츠에서의 교환거래 활동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공동체화폐 ‘두루’의 거래를 통해서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가진 물품과 서비스를 ‘두루’로 거래하면서 재사용, 재활용, 공유하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필요한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으면서 순환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품이나 서비스 이외에도 아이디어, 노동력 등 모든 것을 나누고 거래하면서 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고 있으며 공동체화폐를 통한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의 시스템이 지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발레츠에서의 거래는 홈페이지(<http://www.tjlets.or.kr>)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회원들의 소식을 나누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에 ‘거래하고 싶어요’ 게시판이나 등록소에 제공 혹은 요청할 물품이나 노동, 서비스를 등록한다. 제공 혹은 요청 등록을 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등록소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다. 거래를 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화폐 두루를 번 사람 즉 물품이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쪽에서 홈페이지 ‘거래했어요’ 게시판이나 등록소에 거래내역을 알리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루를 준 사람, 즉 물품이나 노동, 서비스를 받은 이가 거래내역을 올리기도 한다. 일련의 과정 속에 거래가 성사되면 등록소는 회원의 거래 내역을 정리 기록하게 되며 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한발레츠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체화폐 ‘두루’는 물품이나 노동,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게 되며 금액은 거래 당사자들이 정하게 되고, 현금화폐와 같은 가치(1,000두루=1,000원)를 갖게 된다. 거래총액의 ‘두루’ 비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재활용품이나 자원 활동처럼 100% ‘두루’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산물과 같이 ‘두루’ 비율이 30% 이하인 거래도 있다.

‘두루’로 거래되는 품목은 민들레 의료생협의 참여로 의료부분에 공동체화폐가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가장 많고 인쇄소, 약국, 식당, 동물병원, 화원, 찻집 등의 거래 품목 이외에도 회원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친환경비누, 환경수세미, 유기농 포도즙, 친환경 농산물 등도 있으며 생산자소모임에서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두루 베이커리, 천연염색 이외에도 마음공부, 다례, 어린이 풍물 등 교육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한발레츠 내에서 공동체화폐를 통해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 덕분에 다양한 생활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2) 한발레츠에서의 참여활동

한발레츠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동체와 연대하기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외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발레츠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체에서의 연대활동

한발레츠에서는 ‘두루’를 이용한 일상적인 거래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달에 한번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회원 소개, 행사나 거래 소식 알람 등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실시하는 품앗이만찬이나 회원 운동회를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밖에도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음식 만들기, 김치 담그기, 두부 만들기, 다양한 차 만들기 등 계절활동을 통해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다. 주말농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계절별 매실 따기, 밤 따기, 감자 캐기 등 농사일을 거들어주면서 회원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물품과 서비스를 ‘두루’ 거래를 통해 경제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여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개선하려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발레츠 출범 초기부터 아동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에서 ‘공동육아’를 시도하였고 의료부분의 개혁적 변화를 시도하기위해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를 개교하여 교육부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두루 공동체교실을 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화를 관람하거나 아이교육을 주제로 강좌를 열거나 에니어그램 강좌를 여는 등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②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한발레츠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을 상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민들레 간병도우미’와 노인들 친교모임인 ‘하얀 민들레’를 기획하여 실천하면서 공동체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도 장애우 평등학교, 흙헐퍼 무료 건강검진 등의 의료 나눔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어린이들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서관 만들기’도 기획하여 진행하고 레츠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품앗이 놀이학교’를 기획하여 교육을 지원해주면서 공동체 활동을 독려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품앗이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은 2012년 7월 현재 20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국에 레츠를 기획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 지역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한발레츠 사례발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③ 구성원들의 자기능력 계발활동

한발레츠에서는 여러 관심분야별로 품앗이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비 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능력을

‘두루’로 교육받고 있다. 한발레츠 회원은 누구나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피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한발레츠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품앗이학교에서 시작한 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 극단을 창단해서 회원 자녀들의 능력을 개발해주고 있으며 요가, 일러회화, 수확품앗이, 마음공부, 명상춤, 먹거리 모임 두루밥상 등 새로운 품앗이 활동을 개발하고 나누면서 돈 없이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품앗이학교로 시작한 소모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생산자 소모임으로 기획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두루부엌,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두루베이커리, 출장요리를 제공하는 두루잔치, 천연염색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두루한땀, 행사때 다과 및 차를 제공하는 다레 등 생산자 소모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생산자 소모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노력한 결과, 2007년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인 ‘행복을 나누고 신나게 일하고 협동으로 경영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애니어그램, 워커즈 콜렉티브 등의 이론 강좌와 천연염색, 천연비누, 다레, 어린이마당극 등의 전문 강좌를 실행하면서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돈 안들이고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레츠투어’를 기획하여 두루로 여러 지역이나 공동체를 여행하면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초에 2012년 대전시 마을기업에 두 개의 사업 프로젝트인 ‘중구 원도심 레츠’와 ‘마을카페 좋은 이웃’이 동시에 선정되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레츠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구 원도심 레츠’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레츠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을카페 좋은 이웃’은 범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두루’가 현존 화폐를 대체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나 인간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라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의 소비생활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공동체에서의 교환거래 활

동과 다양한 참여 활동은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 나타난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을 살펴보았다.

1) 화폐의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적 소비행동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많은 것을 공동체화폐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 레츠에서 실물화폐 없이 모든 것을 거래하고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화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전체 가계경제의 20~30%를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99% 레츠에 두고 있다고 응답하여 레츠 공동체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품앗이를 통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얻으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레츠에서 교환하고 거래하면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생각된다고 말해 한발레츠에서 다양한 거래를 통해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동화폐가 있어서 그리고 제품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가해서 실물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구요. 그리고 진짜 특별히 실물화폐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물화폐 없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량량별)

우리 라인을 보면 사람들이 버리긴 그러니까 옷상자 앞에 놔둬요. 그럼 거기서 뒤적거리고 있으면 가끔은 비참해요. 레츠에서 고를 땀 안 비참한데. 앞에 통로에서 ‘아 저건 내가 버린건데 저 사람이 입네’ 이럴까봐 괜히 신경 쓰일 때도 있어요. 레츠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골라 입거나 부담 없이 아이들도 골라서 입혀요. (자작)

제가 어디를 가고 애들은 갈 곳이 없을 때 여기 와서 놀고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해요. 마음의 중심은 99%정도 와 있지만 실제로는 2, 30% 안쪽으로 와 있는 거 같아요. (가을하늘)

2)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소비태도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회원이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계란, 두부, 감자, 사과, 배, 콩 등 많은 농산물을 회원들끼리 나누어 먹는데 관심이 높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높다. 한 살림이나 생협 등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품을 소중히 사용하고 재활용이나 기부를 할 때도 제품의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도 물품사용에 유의하도록 교육시키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함께 살아가는 가치와 태도가 소비생활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 옷은 항상 레츠에서 조달하고, 먹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거의 전부터 한살림을 이용하거든요. 이제 여러 군데 가기 귀찮기도 하고 거기를 가서 사면 일단은 우리나라나 하여간 지구에 있는 것을 살 수 있기도 하고 믿을 수 있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생협을 이용하죠. (바람)

한발레츠에서 거래하다보면 다른 가게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먹거리라던지 생명체라는 것에 의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니가 쓰던 물건을 깨끗이 닦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한테 줘라. 그것이 기부다. 기부가 뭐 큰 거 갖다 주는 거 아니다. 니 손으로 깨끗이 닦아서 꼭 필요한 아이 주면 그것이 기부다. (가을하늘)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이 건 누가 쓰던 거고 이 건 누가 하던 거고,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이 건 누가 쓰던 거고. 이런 게 재미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옷. 그리고 애들이 뭘 물건을 쓰거나 아니면 옷을 입을 때도 이거는 내가 입고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 그 옷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입으면 애가 커서 그대로 남아 있는 옷 이런 것은 깨끗이 손질해서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자작)

3) 공동체와 나누는 소비행동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공동체 내의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염려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동네 서점의 영업이 어려워질까 봐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지 않거나 동네 아저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경영이 어려울까봐 대형 슈퍼마켓에는 거의 가지 않으며 동네 가게를 주로 이용하는 등 공동체 사람들과의 나눔을 생각하며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노인들의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하는 등 공동체에서의

삶에도 관심을 넓혀나가면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동네에 굴러다니는 선풍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고쳐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레츠에서 개인이 아닌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책을 살 때 절대 인터넷으로 안사요. 저는 항상 책을 살 때 정가를 서점에 가서 주고 사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을 사용하면 작가들이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가까운 슈퍼를 가요. 너무 작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마트나 대형매장은 일 년에 한두 번 갈까. 가까운 슈퍼가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감쪽지)

그런 아이들한테 실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건 약간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책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조금 올해에는 해볼까 하고 학교에 얘기하고 있어요.(랑랑별)

노인 분들과 간단하게 배드민턴 친다던지 애들이 축구나 뭐를 할 공간은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내고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을 위한 공간이 아쉬웠는데 부녀회장이 아파트에 생긴 공터를 찬반투표를 통해 용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막 달려갔어요.(감쪽지)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 하라고 해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난감 챙겨서 필요한 사람 갖다 주고 제가 그 짓을 해서 우리 남편이 오지랖이 넓게 그것을 왜 들고 다니냐고 그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옷도 애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하니깐 옷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저기 달라는데 거기 또 주고 막 그랬어요.전자제품 선풍기가 있잖아 목만 딱 꺾이면 내 놔버려요 그런데 선풍기 요것만 하면 되는데 버려요. 고쳐서 다른 사람이 쓰면 좋은데..... (가을하늘)

4) 지구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행동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쓰레기로 뒤덮여지는 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되도록 자동차를 덜 타고 걸어 다니고 비닐 쓰레기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탄소배출량에 대해 염려하고 후손의 미래에 대해 염려한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사면 포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 지구에 쓰레기를 남길 것을 우려해 완제품을 덜 산다. 학교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미술활동을 할 때도

품을 부쳐서 오히려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교육현실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 외국여행을 다녀올 때 공산품을 사오면 공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거리로 품목을 바꾸어서 구입하고, 참치가 지구에 해를 미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참치를 먹지 않는 등 지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비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오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애 아빠가 주말에 차를 같이 타고 갈 때는 차를 타고 가지만 버스 아니고는 거의 모든 생활을 걸어 다녀요. 지구를 위해서. 지구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인데 이제 쓰레기, 그러니까 비닐 쓰레기 되도록 안 쓰려고 하구 먹거리도 신경 쓰지만 그래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차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차는 정말 많은 거 같아서..... 그리고 먹는 것은 완제품을 사는 양을 줄이면 비닐이나 뭐나 이런 게 줄어들죠. (량량별)

예술 활동이면 재활용이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냥 본드 덕지덕지 붙이고 무슨 액자 하나 만들고 그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늘리는 거야...그게 불특정 다수에 의한 폭력이나 오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참치 소비국이란 것을 알고 난 후에 슈퍼에 가서 참치 캔은 안 사요. 의도적으로 소비를 자제하는 거죠. 어쨌든 생태계 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감꼭지)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야하겠는데 뭔가 공산품을 사가는 거면 그게 또 공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거리가 제일 좋겠다 해서 바나나 말린 거를 사다드렸는데 선물비용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게 서로 나누는 즐거움 아닌가요. (옥강)

불특정 다수에 의한 폭력이나 오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특정한 사람보다. 왜냐하면 락스, 하천오염 같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오염이라는 것 끔찍한 거잖아요. 의식도 못하고 있을 뿐 더러. (가을하늘)

5) 소유의 욕구에서 자유로운 소비태도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과잉으로 소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

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레츠에서 한번 살펴보면 줄일 수가 있다고 하면서 레츠 공동체에서는 줄이는 소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여행을 갈 때 수영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번 쓰고 말 것을 알기에 레츠에서 빌려서 다녀왔다고 하면서 레츠가 있어서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의식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은 몸을 좀 많이 비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 과잉.. 모든 것이 과잉인 거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비우는 작업을 올해에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작)

소비생활하면 일단 돈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일단 줄여야 되니까 의식주 하면 일단 옷은 레츠는 항상 상설로 옷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레츠에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건 사요. (감꼭지)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왔어요. 수영복이 필요하대요. 수영복이 없는데. 가서 사면 쉽잖아요. 가서 사면 쉬운데 그래도 그거 한번 가서 입으려고 산다는 게 이제 좀.. 습관이 된 거예요. 한두 번 쓰는 것을 사는 거에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레츠 회원들 중에 물어보는 거죠. 수영복 빌려줄 수 있는지. 저랑 체격이 비슷한 사람에게. (옥강)

작은 데부터 소리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환경? 그 우리 레츠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런 곳부터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가을하늘)

3. 공동체화폐운동의 윤리적 소비 특성 분석

앞에서 분석한 한발레츠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을 토대로 공동체화폐운동이 어떠한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발적 참여 실현 - 주체적인 소비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이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로 ‘취지가 너무 좋아서’ 또는 ‘잡지에서 읽고’ 또

는 ‘주변에서 권유해서’ 참여했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써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의지가 자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LEE(1999)의 송과품앗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념 및 취지 때문에(57.2%),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남을 도울 수 있어서(16.1%)’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11.7%)’, ‘이웃을 사귄 수 있어서(4.4%)’, 순으로 응답해 공동체화폐운동의 이념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거래 활동이나 참여활동을 통해 공동체 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참여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공동체화폐제도 내에서 모든 활동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발적 참여 실현은 윤리적 소비의 ‘주체적인 소비’의 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저는 품앗이 활동으로 왔다가 여기가 너무 취지가 좋아서 아예 그냥 참여를 했어요. 이사 오기 전에 어딘지 모르지만 방송에서도 보고 잡지에서 봤어요. 녹색평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가 이사 오면서 바로 가입을 했어요. (가을하늘)

저도 녹색평론에서 수박이 쓴 공동체에 대한 글을 읽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 거기가 눈에 띈게 대전이 십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제일 잘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읽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한발레츠라는 곳이 있구나. 내 생활이 그게 먼 거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동이라 그래서 장구도 배우고, 그래서 같이 용기를 내서 와봤다가 가입하게 되었어요. (랑랑별)

저는 민들레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그때는 사무실 같이 썼잖아요. 그때는 같이 막 어울렸는데. 레츠라는 또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해서. 아파서 왔다가 또 이런 병원이라고. 조합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면 좋겠다. 해서 가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활동 하면서 레츠 사람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었어요. (옥강)

2) 사회적 책임 실현 -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

한발레츠를 통해 참여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으며 생산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물을 이용

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제도 내에서 가졌던 유통단계와 생산과정에 대한 불안함이 공동체화폐제도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생산과정을 인식하고 알게 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제품 이상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소비자가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화폐제도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체험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환과 거래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실현은 윤리적 소비의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의 매일 레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생협에 5-6년 전에 가입했었는데 유통과정이 불투명하고 생산자도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는 중간상인도 없고 유통과정도 투명하니깐 신뢰가 가요. 명절 선물 때도 레츠에서 나오는 사과, 농산물 같은 것을 이용해요. 이제는 무엇을 선물할까 염려하지 않아요.(옥강)

레츠에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 믿는 것 같아요. 레츠에서는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부터는 한 살림 물건도 덜 믿게 되었어요. (자작)

레츠가 아니었으면 재활용품 거래도 잘 못했을 거예요. 누가 쓰던 거를 좋아하는 성질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놓았다면 찝찝해서 못쓰거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레츠 때문에 두루두루 돌려쓰는 거가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 같아요. (바람)

3) 공동체 사회 실현 -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한발레츠에서는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서로 부르는 호칭을 직위가 아니라 각자가 정한 별명으로 부르면서 세대, 계급 간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누구라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켜주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염려하면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동네 슈퍼를 염려하고 동네 서점을 염려하며 동네 이발소를 염려하며 자신의 소비생활을 통해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염려하고 능력이 되는 한 가격을 다 주고 구입하려고 하며,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을 이는 등 소비생활을 통해 공동체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공동체화폐제도는 동시대 인류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소비 즉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무슨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이 파업한다던데... 그게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해서..... 내가 몇만 원에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싸이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좀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요. 없어야 하지만..... 싼 제품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수의 그만큼 차지하는 것이 소수가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다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렇게 소비하기는 싫거든요. (감쪽지)

능력이 되는 한에서 가격을 다 주고 하려고 구입하려고 해요. 함께 키운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개념 속에서 키운다는 것.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서로 나눠 쓰고 이런 데에서는 참 좋더라고요. 레츠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다 본다는 것.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가늘하늘)

가까운 슈퍼마켓을 주로 가요. 저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대형 마트야 뭐 알아서 굴러가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나 하나로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나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죠.(옥강)

4) 생태적 가치 실현 - 지속가능한 소비

공동체화폐운동이 활성화되면 재활용, 재사용, 공유사용을 통해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생명의 순환에 대해 염려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공동체화폐운동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화폐제도는 경제적 거래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의 실천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있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생활문화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화폐운동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윤리적 소비의 ‘지속가능한 소비’의 특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지금 환경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닦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전체적인 지구의 자원을 아끼는 그쪽으로 돌려주면 애들이 재활용 옷을 입고도 학교에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가을하늘)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했으면 해요. 그러면 재활용품으로 그러니까 다른 예술활동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재주가 없지만 주변에 에코 테이너가 좀 많이 늘어나서 재활용품 만들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용은 지불해도 좋으니까(랑랑별)

저 같은 경우엔 요즘에 생명의 순환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해요. 저는 이제 텃밭에다가 야채 같은 거라던가 뭐 이것저것 길러서 먹는데요.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류해서 구덩이를 파서 그쪽에다가 퇴비로 쓰려고 모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농작물을 길러서 내가 먹는데.. 갑자기 먹거리라던가 이런 시간이라던가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자작)

5) 간소한 삶 실현 - 절제하는 소비

공동체화폐제도인 한발레츠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쟁과 불신이 지배하지 않는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으며 적게 가지면서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사회의 많은 문제는 과잉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공동체화폐제도 내에서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다.

모임도 작은 모임으로 하고, 시작도 작게 하려고 하면서 큰 것만이 최고인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화폐제도에서는 간소한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윤리적 소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절제하는 소비’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여기 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가까이 부녀회 가입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작은 모임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던지. 그런 거죠.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태죠. 레츠가 처음 시작할 때 공간 생각하면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사람 한 두 사람만 상설로 제한을 뒀서 활용한다면 아파트 안에서 우리 라인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아요.(감쪽지)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우리 유성구 쪽에서라도 작은데 하나 놓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아니면 아파트 별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 하나 단점이 인력이 어디를 가고 이동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서로 가는 길에 데려다주고 하고 하는데. 그 몇 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버리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고 이게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었다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먹거리고 뭐고 다 그렇잖아요.(가을하늘)

많이 가지지 않아도 레츠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나한테는 참 좋고, 좋은 경험이다 싶어요.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가 강습하는 것을 레츠에서 시작하고 또 아이, 제 아이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바람)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은 자발적 참여 실현, 사회적 책임 실현, 공동체 사회 실현, 생태적 가치 실현, 간소한 삶 실현 등의 윤리적 소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각각 윤리적 소비가 지향하는 주체적인 소비,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절제하는 소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윤리적 소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윤리적 소비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공동체화폐제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제도이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체화폐운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이 소비자로서 경험하는 현장으로 한발레츠를 선정하고 참여관찰 및 집단심층면접 등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04년 5월부터 한발레츠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소비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집단심층면접은 2011년 1월 19일 약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접은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의 참여활동과 소비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주체적인 소비,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절제하는 소비로 보고 이러한 관점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공동체화폐운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먼저 공동체화폐제도 내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두루로 거래하면서 재사용, 재활용, 공유하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다. 두루로 거래하는 품목으로는 의류비, 인쇄소, 동물병원, 화원, 찻집 등 거래품목 이외에도 회원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친환경비누, 환경수세미, 유기농 포도즙 등이 있었으며 마음공부, 다례, 어린이 품물 등 교육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소식지활동, 만찬활동, 계절활동 등 함께 하는 나눔활동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개선하려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 공동육아, 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 등을 개교하는 등 공동체에서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한발레츠 참여자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 상영, 의료 봉사활동인 민들레 간병도우미, 하얀 민들레, 장애우 평등학교 등 의료 나눔행사를 펼치며, 지역의 도서관 만들기도 진행하고 있으며 레츠를 전파하는 품앗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발레츠에서는 여러 관심분야별로 품앗이학교를 운영하고 어린이극단을 창단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생산자소모임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여성가족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밖에

도 레츠투어를 기획하여 두루로 여행하면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전시 마을기업에 ‘중구 원도심레즈’와 ‘마을카페 좋은 이웃’이 선정되어 주민들과 교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화폐제도인 한발레즈의 참여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공동체화폐 거래로 화폐가치를 창조하고 있었으며,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소비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공동체와 나누는 소비행동을 하고, 지구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소유 욕구에서 자유로운 소비태도를 보이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화폐제도 내에서의 소비생활을 통해 공동체화폐운동이 가지는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공동체화폐운동은 자발적 참여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며 공동체사회를 실현하고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며 간소한 삶을 실현하는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공동체화폐제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향해야 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대안적 경제제도로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 변화 즉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인 공동체화폐운동 참여자들이 그들의 소비생활 속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공동체화폐제도가 윤리적 소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파악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윤리적 소비 실천의 활성화 방안 및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한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먼저 공동체화폐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음을 설득적으로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최근에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력으로 공동체화폐운동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공동체화폐는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부족하지 않으며 이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종속될 필요가 없고 공동체화폐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공동체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체화폐운동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면서 여러 지역 공동체에서 공동체화폐제도의 실천을 기획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에서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이 시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지역공동체에 온라인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기획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공동체화폐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실천방법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동체화폐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12년 7월 서울시에서 설립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공동체화폐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화폐운동의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주제어 : 공동체화폐운동, 소비생활, 윤리적 소비, 한발레즈, 질적연구방법

REFERENCES

- Barnett C, Cafaro P, Newholm T.(2005), Philosophy and Ethical Consumption. The Ethical Consumer, Harrison R, Newholm T, Shaw D., Sage: London, 11 - 24.
- Carne, A., Matten, D. (2003), Business Ethics : A European perspective, Managing Corporate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ha, T. H. & Ha, J. Y. (2010). Why do Consumers Purchase Fair Trade Products?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3(1), 1-20.
- Cho. O (2012). A Feminist Study of the Alternative Nature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nts in

- Hanbat LET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Chun, K. H. & Rhee, K. C. (2005). A Study on the Meaning of Consumption Culture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Focusing on Hanbat-LETS" Participant's Consumer Behavio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4), 593-611.
- Chun, K. H.(2006). A Study on the Consumer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Consumerism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Chun, K. H.(2008a). Money which is making the happy world, Rhee, K. C et. al. (Ed). *Consumer Issue there are seventeen*, Seoul : Kyomoonsa.
- Chun, K. H.(2008b). An Exploratory research of the Consumer's Prosumer Activities focus on the Community Currency Participants, *Korean Society of Cosumer Studies Autumn Academic Conference Casebook*. 235-245.
- Chun, K. H.(2009). The Histor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Community Currency, *Kwacheo Pooasi Open Course Casebook*, 21-60.
- Chun, K. H., Hong, Y. G., Youn, M. A. & Song, I. S. (2010). the Good Consumption and the Ethical Consumption, *Sigmapress*.
- Chun, K. H., Hong, Y. G., Youn, M. A. & Song, I. S. (2012).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Change of Cognition and Practice of the Ethical Consumption after Taking a Course 'Consumption and Ethics'. 21(3). 505-526.
- Cowe, R. & Williams, S. (2001). Who are the Ethical Consumers?. *Co-operative Bank/Mori Survey*, Co-oprative Bank, London.
- Hong, E. S. & Sin, H. Y. (2010). The Ethical Consumptions and Related Variables of the Undergraduat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131-149.
- Hong, Y. G. (2009). A case study of ethical consumer in Korea, *Catholic University, Korea*.
- Hong, Y. G. & Song, I. S. (2008). A Study of Cases of Ethical Consumption in the Analysis of Purchasing Motive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1(3), 23-42.
- Hong, Y. G. & Song, I. S. (2010). A Case Study of Ethical Consumer in Korea,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3(2), 1-25.
- Huh, E. J. (2011). The Determinants of Consumer'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n the Ethical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2(2), 89-111.
- Im, J. H. (2004). Local Currency, Alternative Economic Community Movement and Cooperative Movement, the Hanbat Lets Archives, Information retrieval, 2012. 7. Primary Sources, <http://www.tjlets.or.kr/>
- Jae, M. K., Seo, J. H. & Kim, Y. O. (2004). College Students' Consumer Non-ethics and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6), 891-901.
- Kang, H. S.(2005). A Case Study on Local Currency Movement: via a Social Audit Approach. *Kyungnam University, Korea*.
- Kang, J. M.(2012). A Study on the Local Currency Institu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ang, S. D.(2002). An Experiment beyond the Profit and the Power : LETS Movement, *Literature and oratory*, 32. 127-147.
- Kim, D. B. & Kim, H. Y.(2000). A Study on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through Local Currency Movement.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Book* (pp. 342-362), Seoul, Korea.
- Kim, D. B. & Kim, H. Y.(2001).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through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5, 40-71.
- Kim, H. C. (2006). Analyses of consumers' non-ethical behavior status and the related fac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6), 1015-1023.
- Kim, H. Y.(200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and Its Impact on the Participant's Sense of

- Community, Yeonsei University, Korea.
- Kim, J. H. (2004). A Qualit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Yonsei University, Korea
- Kim, J. H. (2009). Consumers' Non-Ethics Behavior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3), 417-423.
- Kim, K. O.(2006), A Search for the Consumption Life - World of City Wives through their Daily Consumption Life Experienc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3). 21-41.
- Kim, S. G. & Chae, J. H.(2003). Home Economics Teacher Characteristics and Affective Morality through Home Economics Instruction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uman Economics Association*. 41(10). 57-73.
- Kwon, H. S.(2006), A Study on the Economic Educational Implications of Local Currency Movement,,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 Kwon, I. C.(2001). (The) Exploratory Research for the Analysis of Determination Factor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Currency Mov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C. E. (2000a).An Axiological Approach on the Currency Value and Currency Institution . *Economic Analysis*, 6(2), 1-28.
- Lee, C. E. (2000b). A Study of Theory and Experience of LETS System which is the Exchange System of Mutual support,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6(2).
- Lee, C. W.(2000). The Introduction of Local Poosi Movement - Local Poosi Movement for the second founding a Nation. Conference Book.
- Lee, C. W.(2002). The Present Condition and Task of My Country Local Currency Movement, Hanbat LETS Experiment. the three years Estimation Workshop. Workshop Book.
- Lee, C. W.(2004). The Local Currency Experiment will continue. *Greenview*. 75. 95-103.
- Lee, D. Y.(1999). A Study of the Expulsion Plan of the Social Security Network in one's daily life as a consumer. Korea Consumer Agency.
- Lee, S. R.(1999). Local Currency. *Urban Prblem* , 34(371), 123-126.
- Lee, S. H. & Sin, H. J.(2012). Ethical Consumption.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Makoto, N.,(2000). Local Exchange LETS : Currency, Media beyond the Credit, Ryu, D. M. (Ed, 2002). the Hanbat Lets Archives, Information retrieval, 2012. 7, Primary Sources, from <http://www.tjlets.or.kr/>
- Makoto, N., (2002). Money which is make a Use Each Other. Lee, H. L. (Ed), Seoul : Don Quixote.
- Martignoni, J.(2012). A new approach to a typology of complementary curr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6(A).
- Muncy, J. A. & Vitell, S. J.(1992). Materialism and Consumer Ethic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137-145.
- Pacione, M. (1997).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as a response to the globalisation of capitalism. *Urban Studies*. 34, 1179-1199.
- Park, J. H. & Kim, Y. J. (2010). Ethical Consumption. Seoul: Medich.
- Park, M, H & Kang, L. J. (2009). Study on the Concept and Practices of Ethical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0). 1047-1062.
- Park, S. H. (2004). Japan Local Currency(Eco-money) Introduction Realities , *Urban Information Service*. Vol. 262. 15-18.
- Park, Y. N. (2001). Habat LETS - the Community Experiment of Sharing and Care, *Greenview*, 60, 29-43.
- Ryu, D. M. (2003). Research Not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Surplus Value Theory, the Economic Joint Academic Conferences Presentaton Thesis Book.
- Ryu, D. M. & Choi, H. J.(2003). A Study of the Activation Program of Local Currency Movement on the Hanbat LETS Case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9(1). 85-106.
- So, B. C. & You, C. S.(2004). Local Currency - the Money which is making the Hope : the Case of

- Australia, USA, Japan, Korea. Greenview. 75. 83-94.
- Song, I. S. & Jea, M, K. (2006). Song, I. S. & Jea, M. K. (2006). Materialism and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9(3),
- The Cooperative Bank(2007). The Ethical Consumerism Report 2007. <http://www.ethicalconsumer.org>
- Vitell, S. J.(2003a). Consumer Ethics Research: Review, Synthesis and Suggestion for the Fut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43, 33-47.
- Vitell, S. J.(2003b). Consumer Ethics: An Investigation of the Ethical Belief of the Final Consum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24, 297-311.
- Vitell, S. J., A. Singhapakdi and J. Thomas(2001). Consumer Ethics: An Application And Empirical Testing of the Hunt-Vitell Theory of Ethic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8(2), 153-178.
- Williams, C. C. (1996).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 a new source of work and for the poor and unemployed?. *Employment and Planing*. Vol. 28.
- Williams, C. C. (1997).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LETS) in Australia: A New Tool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
- Won, Y. C. (2001). The Symbolism of Currency. *Journal of Management & Economics*. 1(1).
- You, E. H.(2000). A Study on the Actual Statue and Effect of LETS MOVEMENT IN KOREA : The Focus of IN-Chon Solidarity "Nanum". Keimyung University, Korea.
- Health to Environment, now to Society,... Evolving the Good Consumption(2009. 2. 27), the Hankyoreh newspaper, Information retrieval, 2012. 7, Primary Sources, from http://english.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341285.html

| 접수일 : 2012. 07. 18.
 | 수정완료일 : 2012. 08. 04.
 | 게재확정일 : 2012. 08. 10.